

# 도라지 추출물, 건강에 좋다

### 혈중 중성지방 농도 감소폭 48% 증가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이화여대대학교(총장 김은미) 권오란 교수 연구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도라지 추출물이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진청은 도라지의 기능성을 밝히기 위해 메타분석(systematic review)을 통해 여러 연구문헌을 검토한 결과, 도라지가 중성지방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동물과 인체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동물실험 인체실험 모두에서 혈중 중성지방과 관련 지표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도라지 추출물을 쥐에게 8주간 먹

인 결과, 혈중 중성지방 농도는 45%, 혈중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4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라지 추출물 160㎖를 96명의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8주간 섭취시킨 결과, 식후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감소하는 폭이 48%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도라지는 예부터 한방에서 치열, 폐열, 편도선염, 설사 등을 다스리는 데 사용돼 온 농산물로 플라티코딘(Platyagin D), 플라티코시드 E(Platyoside E),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다. 이러한 성분들의 복합작용에 의해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정확한 기전 규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논문 게재하고 특허등록 2건 아스퍼질러스 시로우사미(Aspergillus shirousanii)를 이용해 도라지의 플라티코시드 E함량을 증진시키는 방법(제10-2169156호)(2020년), 와이셀라 시비리아(Weissella cibaria) JW15 균주를 이용해 도라지의 플라티코딘 D 함량을 증진시키는 방법(제10-2255666호)(2021년)을 완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 영 과장은 "최근 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도라지의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밝혀져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농산물 온라인유통 대변화 일환으로 산지에서 손쉽게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인 '산지 온라인지역센터'를 22일 지역본부 8층에 개소했다.

## 산지에서 온라인 사업 추진 기반 구축

### 전북농협, 산지 온라인지역센터 개소... 기업으로 남원 복숭아 전량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산물 온라인유통 대변화 일환으로 산지에서 손쉽게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인 '산지 온라인지역센터'를 22일 지역본부 8층에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으며, 농협경제지구 유튜브 채널 '농담북북'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했다. 이어 개소기념으로 실시된 라이브커머스 1호 상품으로 준비된 남원 복숭아 2.5KG 600박스를 전량 판매했다.

농협은 향후 온라인사업의 최대 격전지는 농식품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온라인 사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지역센터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농산물을 스토리텔링, 상품소개 등 콘텐츠를 입힌 뒤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11번가 등), 라이브커머스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협형 아커머스를 담당한다. 또한 산지농협이 다수 온라인몰에서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소싱 오픈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온라인 교육, 회의 등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중국 알리바바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온라인 사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지역센터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농산물을 스토리텔링, 상품소개 등 콘텐츠를 입힌 뒤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11번가 등), 라이브커머스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협형 아커머스를 담당한다. 또한 산지농협이 다수 온라인몰에서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소싱 오픈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온라인 교육, 회의 등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협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오늘 개소한 온라인지역센터가 온라인 판매사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다소 복잡한 절차와 유통업체 주도로 수동적으로 가격 경쟁에 대응했다면, 앞으로는 산지농협 중심의 온라인 농식품 공급생태계를 구축해 온라인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상황 속 작년 도내 농가소득 4428만원

### 전년보다 7.4%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이 전년에 비해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득증가는 농업보조금, 공적연금 등 공적 보조금과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돈사적 보조금을 합한 이전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농가당 평균 소득은 4428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4121만원보다 307만 원(7.4%) 늘었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 9.3% 보다는 1.9%p 낮은 수치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을 합한 것



로, 지난해 전북 농가의 농업 소득은 1,380만원으로 전년(1,311만원)대비 5.3% 증가했으며, 농업외소득은 1,233만원으로 전년(1,265만원)대비 4.1% 감소했다.

2020년 전북 농가소득 구성비는 이전소득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소득 31.2%, 농업 외 소득 27.4%, 비경상소득 5.5% 순이다.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은 2019년 보다 각각 5.3%, 26.8% 증가했으나 농업 외 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4.1%, 16.5% 감소했다.

김윤상 기자

## 종자원 전북지원, 2021년산 맥류 보급종 종자 신청접수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박희수)은 2021년산 맥류 보급종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전북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4품종 447톤으로 큰알보리1호 70톤, 흰찰쌀보리 304톤, 누리찰쌀보리 33톤, 곡우호밀 40톤이다.

관내 지자체에 보급종 신청·접수 시 보리는 소독 여부를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독종자 신청은 8월 13일까지이고 미소독 종자 신청은 8월 27일(금)까지이며, 이를 유의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등록여부가 없는 호밀 종자는 전량 미소독으로 공급된다.

급강필의 경우, 우선공급 이후 잔량 발생 시 일반 농가에 대한 신청·공급량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한 종자는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타 보급종 품종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사이트의 품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 관련 문의 사항이나 품종별 특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530-3620) 또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호성 기자

## 도민·소상공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 전북은행, '마이데이터' 분허가 획득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분허가를 승인받았다. 그동안 지역민에게 최적화 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의 의지를 보여 왔던 전북은행은 서한국 은행장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예비허가에 이어 이날 분허가 취득을 확정지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로, 고객 개인의 재무·소비 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자문·자산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금융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사업이다.

이에 전북은행은 올해 안으로 모바일 뱅킹을 통해 고객의 자산 부채, 소비를 한 눈에 보여주고, 고객의 금융 현황을 진단, 분석, 예측해 고객 자산 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따뜻한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은행은 지역화폐와 마이데이터를 결합해 고객에게는 지역화폐의 최적 혜택을 소개하고 지역화폐를 연계한 충전과 결제 기능까지 제공하는 '우리 동네 최적 혜택 길잡이', 고객이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정책지원금을 분석하고 추천해주는 '정책지원금 알람기능' 등 지역맞춤형 마이데이터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박준준 부행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지역민과 소상공인, 지자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과 상생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객의 금융생활 전반에 가치를 전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서남상의, 도내 서남권 자동차 부품 관계자와 간담회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정필)는 22일 전북서남상공회의소 2층에서 전북서남권 지역 자동차 관련 부품 대표자와 시장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동종업종 간 정보교류와 친목 도모 등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및 상생발전 방안 강구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해보고 서로의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정필 회장님께 감사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최정필 회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번 간담회를 하게 되었고, 동종업종 생산업체들이 상생하기 위해선 정보교류와 서로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동차 관련 업종을 시작으로 다른 동종업종간의 간담회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기로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승=김대환기자

## K-푸드의 해외 시장 개척

### 오늘 재한외국인 농식품 품평단 K-Foodies 발대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FTA, 사장 김춘진)는 22일 '재한외국인 한국 농식품 품평단 K-Foodies 발대식 및 품평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품평단을 일컫는 'K-Foodies'는 한국의 K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라는 의미의 푸디즈(Foodies)를 조합한 것으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필리핀·러시아·호주·브라질 등 7개국 국적의 주한 외국인 150명을 선발했다.

이번엔 선발된 품평단은 코로나19로 해외 현지 대면 마케팅 테스트 등 시장개척 활동이 어려운 중소식품 수출업체의 애로 사항 해소 및 수출 유망제품의 해외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연말까지 맡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 이어 개최되는 온라인 품평회에는 30개 수출기업이 참가해 유망제품에 대한 국가별 식습관 정보, 선호도, 상품개선 사항 등을 재한 외국인 품평단을 통해 평가받게 되며, 품평단의 의견은 수출기업의 제품개선, 국가별 수출전략 수립에 활용된다.

품평단은 이번 품평회를 시작으로 온라인 대규모 품평회와 국내 수출 현장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품평회 등에 참여하며, 체험한 한국 식문화 및 품평 제품에 대해 SNS 홍보에 나서는 등 K-푸드의 글로벌 서포터즈로 활약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재한외국인 농식품 품평단 활동이 참가 수출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시장 개척에 힘을 실어 다양한 국가로 한국 농식품이 퍼져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스마트 국토가 그려내는 공간정보 미래'

### LX-국토부 '웨비나'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과 국토교통부는 22일 온라인을 통해 '제4회 지적세미나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4회를 맞이하는 지적(地籍)세미나는 지적측량, 지적 및 공간정보 대국민서비스 제도 개선, 우수정책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LX, 정부 및 관련 학계와 함께 하는 대표 연례 학술세미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속에서도 최초로 '웨비나' 형태를 도입해 물리적 장소와 인원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공사는 스마트 국토가 그려내는 지적·공간정보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12개 지역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 과제를 공모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8편(공무원 4편, LX 4편)이 선정됐다. /김윤상 기자

선정된 8편은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과 접목한 지적측량·행정 사례를 ▲스마트 국토의 토대 ▲스마트 국토 그리고 국민 ▲스마트 국토의 내일 등 총 3개 세션에 나누어 선보인다.

손준영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은 "이번 지적세미나의 연구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적·공간정보 데이터는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토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국토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선도적이며 실질적인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지적세미나 영상은 LX공사 YouTube 채널 LXTV(https://youtu.be/Yj\_wyTq8d)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김윤상 기자

## 서부 산림청, 폭염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강화를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온에 의해 뱀·벌·독충 등의 피해 및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특히 폭염에 대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휴식시간 제공(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준규 서부청장은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